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과 선수단이 일본과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22일 출국하고 있다.

마스크 완전무장 '벤투호' 요코하마 '한일전' 출사표

한국 축구대표팀이 코로나19 악재를 뚫고 80번째 한일전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5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평가전을 위해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떠났다.

당초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축 선수들을 소집 명단에 올렸지만 부상과 코로나19 악재 등으로 합류가 불발됐다.



이달 25일 2022 FIFA 지역 2차 예선 참가하러 어제 출국 축구협, 훈련장 독점사용-철통방역 매뉴얼 마련 담금질 손흥민·황희조·황희찬 등 주축은 부상-코로나로 불참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평가전(0-3 패배) 이후 사실상 10년 만에 갖는 A 대표팀 1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반쪽짜리 대결로 격하됐다.

우선 손흥민은 15일 아스날과의 복원던 터미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이후 2경기 연속으로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 대표팀 차출도 어렵다”는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의 말처럼 그의 합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에서 뛰는 황희조(보르도)는 구단 방침에 따라 빠졌고, 소속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재성(울슈타인 킬) 역시 소집에서 제외됐다.

황희찬(라이프치히)은 소집 명단에 올랐다가 독일 작센주 보건 당국의 격리 규정에 따라 차출이 불발됐다. 이밖에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김민재, 손준호도 소속팀 조치에 따라 합류하지 못했다.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 손흥민의

제외와 함께 주세종(감바 오사카), 엄원상(광주)의 합류 불발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둘은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 내측 인대 부상으로 벤투호에 합류하지 못한다.

이에 협회는 손흥민, 엄원상, 주세종을 대신해 조재완(강원), 이진현(대전), 김인성(울산)을 대체 발탁했다.

이어 출국 당일에도 윤빛가람(울산)이 왼 종아리 부상으로 낙마했다. 같은 팀의 이동경이 대신 간다. 울산은 총 7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일정이 6월로 연기되면서 일본축구협회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그러나 양국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축들이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김이 빠진 감이 있다.

벤투호가 A매치를 치르는 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이후 4개월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멕시코에 2-3으로 졌고, 카타르에 2-1로 승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여수선했던 원정 평가전이다. 협회 의무분과위원회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일 코로나9 검사’

‘각자 식사’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알렸다. 협회 의무위원회와 국가대표 운영팀이 발간한 방역지침서를 토대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개최지 일본의 최근 방역 지침을 참고해 만들었다.

벤투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얼굴 보호 투명 플라스틱과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했다. 일본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항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장은 대표팀이 독점으로 사용한다. 팀 버스는 2대를 운영해 선수와 스태프가 최대한 멀리 하도록 했다. 버스 안에서 창문 쪽 좌석에만 착석 가능하다. 자가용 이동시 탑승 인원은 4인 이내로 제한한다.

이밖에 식사 시간, 훈련 시간, 경기 시간을 제외한 모든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리그 소속 선수들은 귀국 이후 곧장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이동해 일주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컨디션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전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일본축구협회는 방역 지침 속에서 유관중으로 한일전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수용 인원은 5000명이다.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79전 42승23무14패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일본 원정에서도 30전 16승8무6패로 앞선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골프 꿈나무에 독일식 족발 제공 박세리 “내가 못하는 건 연애뿐”

MBC 쓰리박 ‘세리데이블’서 독일식 코스 요리 준비 눈길

‘쓰리박’ 박세리(사진)가 자신의 연애에 대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방송된 MBC ‘쓰리박’ 6회에서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이 라이벌에 관해 밝혔다.

이날 세리데이블 세 번째 손님인 유소년 골프 꿈나무들이었다. 세 박세리는 ‘세리데이블’을 찾아온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독일식 족발 ‘슈바인스학세’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박세리는 “대회 후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운을 주고 싶고, 경험담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메뉴는 단호박 수프, 고기 파스타, 슈바인스학세였다. 박세리는 슈바인스학세에 대해 “독일 남부지방에서 먹는 독일식 족발이다”고 설명했다.

박세리는 요리 연습 과정을 되짚으며 “답답했다. 파스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데, 고기 안에 면이 있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세기는 “끝나고 언니 집에서 잤는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푸념했다)”고 했고, 박세리는 “욕했다”며 웃었다.

골프 꿈나무들을 맞이 하는 날 박세리는 먼저 고기 파스타를 격정하며 파스타부터 만들었다. 다 행히 이번엔 요리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박세경이 “못하는 게 뭐냐”고 묻자, 박세리는 “연애?”라고 했다. 박세경은 “연애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박세리는 “안 한다고 말하는 거지. 이 정도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세리는 “골프를 치다 지치거나 하기 싫을 때도 있었냐”란 질문에 “선수 시작하면 좋은 성적만 나진 않는다.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았다. 그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힘들지”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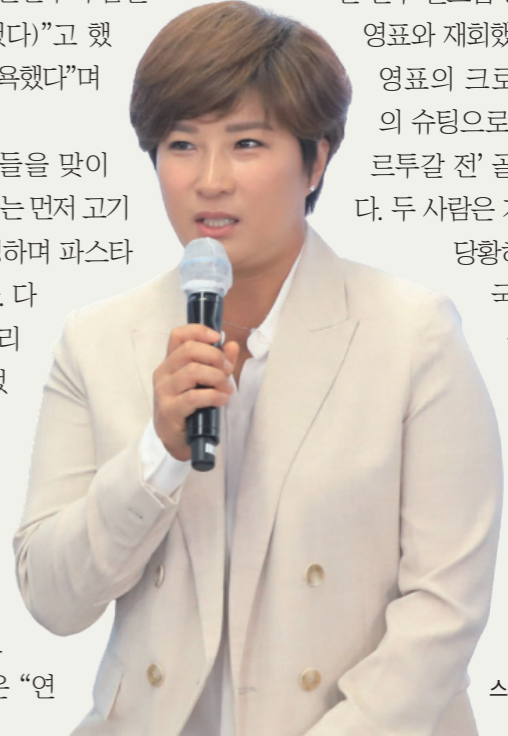
박세리는 “연장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임하나”란 질문에 “이기려고 욕심 부리기보다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속상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호는 임창정과 라이벌 골프 대전을 벌였다. 그는 연에게 골프 최강자로 소문난 임창정에 지지 않기 위해 500회의 스윙 연습과 남영우 프로의 퍼팅 특훈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박 매치에 앞서 주선자였던 배우 김성수는 “김두한처럼 한방이 있는 게 박찬호라면, 임창정은 테크니적인 부분에서 시라소니 같다”고 말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박찬호는 어마어마한 장타 실력으로 ‘프로급’이라는 임창정의 극찬을 받았다. 임창정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기술을 선보이며 20년 골프 연륜을 증명해 보였다.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의 역사가 담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영표와 재회했다. 이들은 이영표의 크로스과 박지성의 슈팅으로 탄생시킨 ‘포르투갈 전’ 골 장면 재연했다. 두 사람은 거듭된 실패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국가대표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눈부신 호흡을 자랑하며 또 한 번의 레전드 골 장면을 완성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Belleville
1766.1535

Time is our tradition.

BELLEVILLE
1766.1535

‘시간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에 위치한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